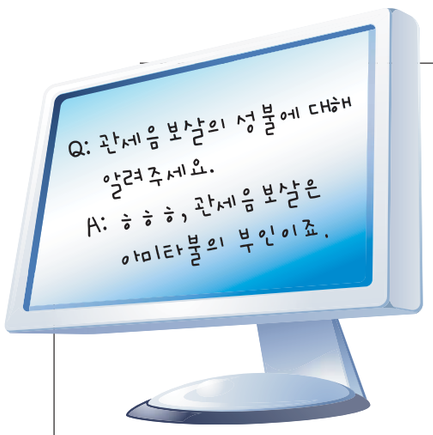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구독신청 02)2004-8212 buddhanews.com 불기 2552년 (서기 2008년) 3월 12일(음력 2월 5일) 수요일 (주간) 제670 호



e-세상에 넘치는 엉터리 불교정보

인터넷 '지식검색'과 각종 블로그에서 불교가제 모습을 잃고 있다. 불교 정보 전문가인 스님과 법사, 포교사 등이 제공하던 정보와 지식을 사이버 공간에서 불특정다수가 제공하게 되면서 생긴 현상이다. e-세상에 넘치는 엉터리 불교정보 현황과 대책을 짚어봤다.

전체회원 수 3천만명, 지식in 서비스 컨텐츠만 8천4백만개인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불교 관련 질문 개수는 현재 1만3천여개다. 이 가운데 잘못된 불교는 파악하기조차 어렵다. 올바른 불교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가도 없다. 네이버 지식in 서비스에서는 특정 분야에 전문 에디터를 선발하고 있지만 불교 카테고리의 전문 에디터가 없는 것이다.

잘못된 불교정보에는 지식검색 서비스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지식검색 서비스 자체가 네티즌 자율에 의한 것이다 보니 비전문적인 답변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네이버 홍보팀 곽대현 과장은 "지식인 서비스는 정답을 구하기보다는 네티즌의 의견을 묻는 구조"라며 말했다. 곽 과장은 "네티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질문자는 원하는 답변을 채택할 뿐"이라고 말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자체적인 컨텐츠 정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신고 기능이 있어도 실제 저작권 침해나 명예훼손, 욕설 등 실정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재할 뿐 별다른 조치가 없다. 지식검색 서비스의 특징을 떠나 불교 정보 관련 활동이 미비한 것도 문제다. 350여개의 불교 관련 질문이 있는 엠파스는 다른 카테고리에 피해 질문 수도 적다. 엠파스 홍보팀 박성우씨는 "불교 카테고리의 경우 타 카테고리에 비해 네티즌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식검색 사이트의 불교 정보 오염에 대한 교계 반응은 '속수무책'에 가깝다. 중앙신도회 정순영 팀장은 "문제의식은 갖고 있지만 대처할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으려면 조직적인 인력 투입이 절실한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제보가 있을 때만 대응할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 정 팀장이 활동하는 종교평화위원회는 2005년 모바일서비스 중 불교 폄하 컨텐츠와 포털사이트의 스님 비하 만화를 삭제한 성과가 있었지만 모두 제보에 의한 것이었다. 조계종 사회부 홍민석 행정관도 "국제 사이트

지식검색 서비스 오류 투성이
교계는 인력 부족 등 속수무책
백서 발간 등 대응책 마련 시급

를 제외하고 국내 사이트에 대해서는 별도 모니터링 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 종단 차원에서의 대책도 없음을 시사했다.

포교사단(단장 강홍원)만은 문제인식을 하고 자체 활동에 나서고 있었다. 자체 사업으로 불교바른정보사업을 벌이고 있는 포교사단은 2007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성과를 모아 사업결과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포교사단은 전에도 동일 사업을 했었다. 2005년부터 2006년 7월까지 50여명의 포교사들이 동참했지만 1년 만에 중단됐었다. 1년의 공백기를 지나 새로 진행된 불교바른정보사업을 주도한 이는 서용칠 포교사(군8팀)다. 서 포교사는 "인터넷상 불교 폄훼와 왜곡이 심각한데 그중 지식검색 서비스가 가장 심각하다"고 말했다. "불교 공부 중 모르는 것을 인터넷에서 찾다 황당한 질문에 황당한 답변을 보고 시작하게 됐다"는 서 포교사는 지금도 매일 2시간 이상씩 지식검색 사이트를 돌며 잘못된 답변을 찾아 정확한 답변을 올린다.

인터넷에 범람하는 오염된 불교 정보 어떻게 정화할 수 있을까? 한 네티즌은 "우선 '불교 지식 사례 분석' 등 백서부터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백서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해 매뉴얼을 만들고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네티즌은 "교계의 조직적인 대응이 어렵다면 포교원 등에서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한 방법"이라 조언한다. "네이버만 해도 답변을 하면 포인트를 받고 레벨이 오른다. 이런 통계를 통해 우수 불자를 포상하는 이벤트를 마련하는 것쯤은 쉬운 것 아니냐"는 것이다. 답변을 다는 것부터 많은 공부가 되는 것이니 종립학교에서부터 답변을 봉사활동으로 인정하자는 의견도 있다. 또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처럼 사이버 포교단을 조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불교정보 자정활동과는 별도로 불교 전문지식 사이트도 필요하다. 서용칠 포교사는 "언제까지 불교 정보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의존해야 하느냐"며 교계 차원의 불교 전문지식 사이트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 지식공유 트렌드에 맞춰 2006년 4월부터 정부도 국가 지식검색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개신교의 경우 크로스맵 기독지식(crossmap.christiantoday.co.kr) 등 전문지식 사이트를 운영한다. 정보화시대의 변화만큼 쏟아지는 의견과 주문이 많은 가운데, 교계에서 얼마나 실천해 파사현정을 구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생명의 강을 지키겠습니다"

3월 7일 문경 봉암사에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대운하 건설계획의 백지화를 촉구하는 특별기도법회가 봉행됐다. 조계종립 특별선원 봉암사(주지 함현)와 종교인 도보순례단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 생명의 강 지키기 불교행동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법회에는 월주 스님(前 조계종 총무원장)과 법등 스님(조계종 호계원장), 정광 스님(봉암사 선원장)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동참했다. 참가자들은 "생명의 근원인 강을 수몰(水沒)시킬 대운하 건설을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고 참회문을 통해 "오늘의 기도가 수행과 성찰의 첫 걸음이 되게 해 달라"고 발원했다. 문경 봉암사/글 · 사진=박재완 기자 관련기사 3면

부석사 오불회 괘불탱 등 5건
문화재청, 보물 지정 예고

문화재청은 3월 6일과 7일 '영주 부석사 오불회 괘불탱', <감지은니 대방광불화엄경>, '도성도', '순천 선암사 순치 14년명 동종'과 '대구 동화사 대웅전' 등 5건을 국가지정 문화재(보물)로 지정예고 했다.

'영주 부석사 오불회 괘불탱'은 부석사에 전래되던 1684년작 괘불 도상에 노사나불을 첨가하한 작품으로 1745년에 조성됐다. 가로축에는 비로자나불 · 약사불 · 아미타불이, 세로축에는 비로자나불 · 석가모니불 · 노사나불을 배치해 삼세 · 삼신의 오불회 형식을 취하는 것이 특징이다.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은 일본에 유출됐던 것을 개인이 환수한 문화재로 총 7권 7첩이다. 고려 충숙왕 복위 5년(1336년) 감색 종이에 은니로 사경된 것으로 사경 연구에 귀중한 자료다.

'도성도'는 18세기 중엽 작품으로 추정된다. 도성(한양)의 전모를 원형구도에 담고 있는 어람용 회화식 지도다. '순천 선암사 순치 14년명 동종'은 보성 대원사 부도암에서 대표적인 조선시대 주종장 김용암이 1657년에 주성한 작품이다.

대구시 유형문화재 제10호였던 '대구 동학사 대웅전'은 493년 신라 보조 화상이 유가사로 창건했다. 772년 신라 심지 스님이 사명을 동화사로 개칭한 이래 수차례 중창이 있었고, 현재 법당은 1727년 화재로 소실된 법당을 중창한 것이다. "전형적인 조선후기 목조건축으로 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평가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 중앙종회 18일 개회

조계종 제176회 중앙종회(임시회)가 3월 18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주요 안건으로는 2007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특별분담사찰 결산검사 및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종헌 · 종법 개정 등이 다뤄진다. 총무원이 2월 28일 입법 예고한 '포살 및 결계에 관한 법 제정안'도 논의된다.

개회식은 18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여수령 기자